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5월 31일(화) 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2년 5월 30일(월) (총7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당자 김선희 팀 장 (043-880-5831) 윤성문 조사관 (043-880-5836)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습 확대로 교육 실효성 높여야

- 심폐소생술(CPR) ·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확대, 교재 지원 필요-

심정지 사고의 골든타임은 약 4~6분에 불과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확대되고 「학교보건법」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학생 16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처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조사대상의 11.7%만이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163명)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심폐소생 방법(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등)'을 숙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3.6%(120명)였다.

그러나 '응급처치 순서(환자상태 확인→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92명)였으며, 패드부착 위치 등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5%(40명)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처치 순서와 심폐소생 방법 등 전체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11.7%(19명)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경험자의 응급처치 요령 숙지 결과]

구분	응급처치 순서 ¹⁾	CPR 방법 ²⁾	AED 사용방법 ³⁾
개별 항목 응답자(비율)	92명(56.4%)	120명(73.6%)	40명(24.5%)
전체 항목 응답자(비율)	19명(11.7%)		

1) 현장안전 확인 → 반응 확인 → 119 신고 → 맥박 및 호흡 확인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2) 가슴압박(100~120회/분)과 인공호흡 비율 30 : 2 등
 3) 패드부착 위치

□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 확대가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15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 협조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9%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15개)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에도 처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응급처치 교육을 위급상황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더불어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실습 교육, 수업 매뉴얼·영상자료와 같은 교재 지원, 강사의 전문성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 응급처치 교육에서 보완할 점(복수응답)에 대한 답변으로 실습(자동심장충격기 93.8%, 심폐소생술 실습 90.1%)과 교육 횟수 확대(52.1%)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보완점(복수응답)**]

구분	AED 실습 확대	CPR 실습 확대	교육 횟수 확대	강사의 전문성	교재 확대	기타
응답자(비율)	153명(93.8%)	147명(90.1%)	85명(52.1%)	30명(18.4%)	16명(9.8%)	2명(1.2%)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학생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확대, ▲응급처치 교육 효과의 증진을 위한 교재(수업 매뉴얼, 영상자료) 제작·배포를 요청할 예정이다.

 <p>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p>	<p>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	--

1 응급처치 일반 현황

- (응급처치) 갑작스럽게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 되는 것을 막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치료행위를 말함.
-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
 - (심폐소생술, CPR)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치료기술
 - (자동심장충격기, AED)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전기적 에너지를 가해 정상 박동으로 돌아 오게 하는 장치
 - * 심실세동 :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심실의 각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
 - ** 심실빈맥 : 심장의 심실에서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심장이 병적으로 빨리 뛰는 상태
-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LCOR)*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함(2020년).
 - * 미국심장협회(AHA)와 유럽소생위원회(ERC)가 창설한 위원회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소생·응급 처치 프로토콜의 시행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심정지 상황에 대한 국민 대응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음.
 -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 각각의 요소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병원 밖 심정지 생존사슬]



2

응급처치 교육 관련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함(동법 제5조).
- 특정 직종 종사자들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동법 제1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관리해야 함(동법 제57조의2).

*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차, 항공/철도 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 「학교보건법」

- 학생과 교직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함(동법 제9조의2, 2014년 개정).

※ 교직원은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은 교육 주기에 대한 규정 부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등(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교육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① 응급상황 대처요령 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③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유럽연합

- 유럽연합의 6개 국가(영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12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16개 국가는 CPR 교육을 권장하고 있음(유럽소생위원회, 2016년).
-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미국

- 직업안전보건국(OSHA)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39개 주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요건으로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3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 결과

조사 개요

□ 면접조사

- (조사대상) 최근 4년 이내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63명
- (조사내용)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경험 및 인식
- (조사기간 및 방식) 2021. 11. 15. ~ 11. 29.

□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관련 자료 분석
 -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로 방문조사가 불가하여 시·도 교육청의 자료 협조를 받아 분석
 -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5개 교육청 자료 확보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조사내용) 전국 고등학교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

1. 면접조사

- (교육 활용 시간) 조사대상자(163명)에게 고등학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수업시간(교과목)을 확인한 결과, '체육수업 등' 시간이 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의적 재량활동' 30.7%이었으며 정규 편성된 '보건수업' 시간은 27.6%에 불과했음.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활용 시간]

체육수업 등	창의적 재량활동	보건수업	기타	계
61명 (37.4%)	50명 (30.7%)	45명 (27.6%)	7명 (4.3%)	163명 (100.0%)

- (교육 강사) 응급처치 교육 강사는 보건교사가 30.1%(4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 강사(27.6%, 45명), 119구조대원(16.6%, 27명) 등의 순이었음.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강사]

보건교사	전문강사	119 구조대원	일반교사	온라인 강의	기타	계
49명 (30.1%)	45명 (27.6%)	27명 (16.6%)	20명 (12.3%)	16명 (9.8%)	6명 (3.6%)	163명 (100.0%)

- (응급처치 지식) 조사대상자(163명)의 심정지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식을 확인한 결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해 제대로 응답한 비율은 73.6%(120명)로 비교적 높았으나, 응급처치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56.4%(92명)로

절반 정도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패드부착 위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4.5%(40명)에 불과했음.

- 특히 응급처치 순서와 심폐소생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전체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비율은 11.7%(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경험자의 관련 지식]

구분	응급처치 순서 ¹⁾	CPR 방법 ²⁾	AED 사용방법 ³⁾
개별 항목 응답자(비율)	92명(56.4%)	120명(73.6%)	40명(24.5%)
전체 항목 응답자(비율)	19명(11.7%)		

1) 현장안전 확인→ 반응 확인→ 119 신고→ 맥박 및 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2) 가슴압박 100~120회/분,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30 : 2 등 / 3) 패드부착 위치

- (실습 경험) 조사대상자(163명) 중 심폐소생술 실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123명)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경험은 44.2%(72명)로 절반 이하였음.

-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을 모두 경험한 응답자는 43.6%(71명)임.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습 경험]

	심폐소생술 실습 경험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경험
경험 있음	123명 (75.5%)	72명 (44.2%)

- (교육 보완점)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확대(93.8%)'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확대(90.1%)'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무교육 횟수 확대(52.1%)', '강사의 전문성(18.4%)' 등의 순이었음.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보완점(복수응답)]

AED 실습 확대	CPR 실습 확대	교육 횟수 확대	강사의 전문성	교재 확대	기타
153명 (93.8%)	147명 (90.1%)	85명 (52.1%)	30명 (18.4%)	16명 (9.8%)	2명 (1.2%)

2. 실태조사(교육청 자료 분석)

- (응급처치 교육) 자료를 제공한 15개 시·도 교육청의 소속 고등학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9% 이상의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미실시한 학교가 발생함.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시율]

(단위 :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 실시율*	100.0 (1,146/1,146)	99.9 (1,951/1,952)	99.8 (1,493/1,495)	96.4 (1,163/1,206)

* 교육 실시율 : 응급처치 교육 실시 고등학교 수 / 전체 고등학교 수

- (보건교사 배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92.2%의 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됨.

[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단위 :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건교사 배치율*	83.7 (1,086/1,297)	81.7 (1,571/1,924)	90.8 (1,653/1,820)	92.2 (1,689/1,832)

* 보건교사 배치율 : 보건교사가 배치된 고등학교 수 / 전체 고등학교 수

- (교육 담당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강사 현황]

(단위 :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보건교사	36.6	32.5	33.4	47.6	37.5
소방서	21.5	23.6	18.7	3.9	16.9
민간기관	18.1	19.6	27.5	10.1	18.8
체육 교사	19.3	19.9	17.1	22.8	19.8
기타(교직원, 개인 강사)	4.5	4.4	3.2	15.5	6.9

- (AED 설치) 전국 고등학교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율은 '21년 기준 약 99.0%(1,526/1,541) 수준임.

- 15개 중 13개 시·도는 전체 고등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2개 시·도의 설치율은 각각 89.5%, 91.0%이었음.